

이중섭, <황소>, 1953-1954

이중섭에게 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소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서 ‘소’가 지닌 특별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혜미

GALLERYHYUNDAI

강렬한 붉은 하늘을 바탕으로 울부짖는 소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관람자를 응시하는 검정 눈동자와 빠른 속도로 거칠게 표현된 소의 얼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1953년경 제작된 <황소>는 ‘국민화가’ 이중섭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1950년대 이중섭은 ‘소’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황소>(1953년경), <흰 소>(1955), <회색 소>(1956년경) 등의 소 그림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중섭에게 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소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서 ‘소’가 지닌 특별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와 닭, 어린이와 가족의 화가 이중섭(1916-1956)은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였으며 8살이던 1923년 평양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마침 1906년부터 시작된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벽화 발굴 사업으로 인해 그는 이 벽화들을 실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이는 후일 이중섭 예술 세계에 중요한 토대로 자리 잡는다. 남다른 수채화 실력을 뽐내던 그는 1920년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서양화가 임용련(1901-?)의 지도 아래 미술을 공부했다. 졸업 후 1936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1937년 분카학원(文化學院, 문화학원) 미술과에 입학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분카학원에서 그는 자신의 미술적 기량을 마음껏 실현하였다.

이중섭은 1938년 일본 화가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5점의 그림을 출품하여 입선함과 동시에 협회상을 수상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평론가이자 시인인 다키구치 슈조(瀧口修造, 1903-1979)와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郎, 1906-1957) 등을 포함한 일본 평단은 ‘천재적 소질을 가진 화가가 조선에서 왔다’며 격찬했다. 이후로도 그는 자유미술가협회의 협회원으로서 활약하고 1941년에는 이쾌대(1913-1965)와 조선신미술가협회를 창립하기도 하며 화가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했다.

“예술을 마치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에게 예술은 삶과 마찬가지로 전부이며, 죽음으로써만 종결되는 것이다. ‘삶과 예술의 일체’는 이중섭에게는 일종의 교리와 같은 것이었다. 구상이 이중섭에 대해 했던 표현 중에서

“나는 이토록 삶과 예술이 일체되는 예술가를 본 적이 없다”는 구절은 이 중섭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러한 태도로 인해 이 중섭의 정직하고 솔직하며 진실한 표현이 나온다. 그의 작품은 자신이 서 있는 공간과 시간, 자신의 처지, 생활 환경, 인간관계, 주변 풍경 등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¹⁾

<황소>는 그가 가족과 헤어진 이 시기를 즈음하여 그려졌다. 선명한 색감과 포효하는 황소의 모습이 강력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작가가 당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가족과의 재회에 대한 굳은 희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중섭의 소 그림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어린 시절 접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벽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필치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구성이 <황소>에서도 보인다. ‘소’는 한국의 논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강인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소재로 자주 사용되었다. 노동, 희생, 근면함과 성실함을 대변하고 한국적 향토성을 드러내는 주제로 이 중섭은 소를 선택하였고 자신의 모습을 그 안에 투영하였다. 다시 말해, 이 중섭의 소 그림들은 곧 그의 자화상인 것이다.

이 중섭은 1956년 세상을 떠났다. 지속적인 작품 활동과 전시 개최에도 저조하기만 했던 수익은 그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몰아갔고 이는 곧 건강 악화와 죽음으로 이어지고 만다.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병원에 남은 그의 시신을 구상이 수습하여 동료들과 장례를 치렀다. 안타깝고 쓸쓸한 그의 죽음 이후 1970년대에 들어 한국 화단에서 이 중섭의 예술 세계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1972년 현대화랑(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이 중섭 작품전》은 그 전초를 알린 첫 대규모 전시였다. 이 중섭의 작품 120점을 선보임과 동시에 도록을 발간하여 미술계와 대중에게 이 중섭의 존재를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1. 김인혜, 「이 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중섭, 백년의 신화』, 부산시립미술관·조선일보사, 2016.

갤러리현대는 1999년 《이 중섭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화랑 역사상 처음으로 약 9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성과를 이룬다. 하루 평균 1,8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이 전시를 통해 이 중섭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화가’로 거듭난다. 이 전시에서는 <황소>를 포함한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화상>, <환희>, <싸우는 소>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2015년에는 이 중섭 탄생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이 중섭의 사랑, 가족》을 개최하여 미공개 상태였던 편지화 20여점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된 은지화 원본 사진 3점을 처음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민족 화가’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 중섭의 바람처럼 그의 삶과 예술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발자취가 되었다. 가난하고 남루했지만 삶의 끝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이 중섭과 그의 예술 세계는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